

#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 특성에 대한 임상 연구

이수현<sup>1</sup> · 한성수<sup>1</sup> · 최선미<sup>1</sup> · 주종천<sup>2</sup> · 김종열<sup>1\*</sup>

1: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Clin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ack Skin of the Han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Su Heon Lee<sup>1</sup>, Sung Soo Han<sup>1</sup>, Sun Mi Choi<sup>1</sup>, Jong Cheon Joo<sup>2</sup>, Jong Yeol Kim<sup>1\*</sup>

1: Department of Medical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methodology of constitution diagnosis is main concer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ut highly reliable method is not yet established. So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characteristic factors of skin such as thickness, stiffness, roughness, and touch-feeling, using 1079 clinical data registered to SCIB(Sasang constitution Information Bank),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e skin of Taeumin are more thick or more stiff or more rough than other constitutions. The skin of Soeumin are more soft or more feeble or more feeble-refined than other constitutions. The skin of Soyangin are more slippery or more thin or more slippery-refined than other constitutions. The differences written above were proved to be meaningful enough by Chi-square test.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skin characteristics, back skin of hand, clinical study

### 서 론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 의학으로서 그 체질판별은 한의학의 전통적인 四診法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 촉감에 의한 절진에 관해서도 체질별 맥의 특성과 기육 특성에 관한 서술들이 있어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기육 특성에 관해서는 동의수세보원에 ‘태음인 기육은 견실하고 소음인 기육은 부연하다.’는 서술이 있고<sup>1)</sup>, 이후 사상요결과 사상요람에 전해지는 변증심조에 ‘소양인은 미끄럽고 얇아 보인다. 태음인은 두텁고 뻣세다(혹은 거칠고 모공이 크다). 소음인은 뜨고 연하다(혹은 모공이 작다).’<sup>2)</sup>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자는 이러한 변증심조에 근거한 피부특성을 오랫동안 실제 임상에 응용해본 결과 체질판별도구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학계에 보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익산원광한의원 의 임상데이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사상체질정보은행에 등록된 자료들의 손등 피부

특성 관련 기재 내용에 대해 체질별로 통계적 분석을 행하는 임상연구로서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피부 특성을 이용한 체질진단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1996년 6월부터 2004년 5월 사이 8년간 익산원광한의원에 내원한 초진환자 중 주증이 호전되어 체질이 판별되었다고 생각되는 환자 그룹 1079명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에 등록하고 이들의 피부진단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 그룹의 성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 2. 연구방법

피부 특성에 관한 변수수는 피부를 두텁고 얇은 정도에 따라 “후”와 “박”으로, 견실하고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견”과 “연”으로, 조직이 성글거나 섬세한 정도에 따라 “조”와 “세”로, 감촉이 미끄럽거나 힘없이 들리는 정도에 따라 “미”와 “부”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진단은 한의사의 촉각을 이용한 전통적 절진

\* 교신저자 : 김종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 E-mail : ssmmed@kiom.re.kr, · Tel : 042-868-9489

· 접수 : 2004/11/25 · 수정 : 2004/12/27 · 채택 : 2005/01/24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체질진단은 익산원광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성격, 행동 양식, 음식, 한열, 소화, 대소변, 땀, 월경, 운동, 수면, 소증, 가족력 및 과거력 등 항목이 들어있는 문진표(별첨자료 '문진표' 참조)의 환자 기재 내역과 외형에 대한 望診, 추가적인 問診, 언어에 관련된 聞診, 맥과 피부 특성에 관한 切診 등 四診에 관한 의사의 판단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자료들은 'Approach 96'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만든 전자차트(별첨자료 '전자차트' 참조)에 입력되어 있어 이를 통해 통계분석을 위한 Source Data를 얻고 SPSS 1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기본적인 빈도 분석과 이러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가장 기초적이며 널리 쓰이는 Chi-square test를 주로 사용하였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by age and sex.

constit-ution N,%	Age(years)							fe-male	male	total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SE <sup>a</sup>	N 12	11	14	46	66	47	44	169	71	240
	% 16.0	10.8	12.3	24.1	27.5	30.7	21.6	25.4	17.2	22.2
SY <sup>b</sup>	N 24	25	27	59	72	30	49	205	81	286
	% 32.0	24.5	23.7	30.9	30.0	19.6	24.0	30.8	19.6	26.5
TE <sup>c</sup>	N 39	66	73	86	102	75	109	289	261	550
	% 52.0	64.7	64.0	45.0	42.5	49.0	53.4	43.5	63.0	51.0
TY <sup>d</sup>	N					1	2	2	1	3
	%					0.7	1.0	0.3	0.2	0.3
Total	N 75	102	114	191	240	153	204	665	414	1079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 SE : Soeumin; b. SY : Soyangin ; c. TE : Taeumin ; d. TY : Taeyangin

## 결과 및 고찰

먼저 피부가 "후"하거나 "박"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Thickness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Thickness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Thin	Count	15	32	90		137
	row %	10.9	23.4	65.7		100.0
	col %	2.7	13.3	31.5		12.7
thick	Count	396	55	58	2	511
	row %	77.5	10.8	11.4	0.4	100.0
	col %	72.0	22.9	20.3	66.7	47.4
not clear	Count	1		2	1	4
	row %	25.0		50.0	25.0	100.0
	col %	0.2		0.7	33.3	0.4
none	Count	138	153	136		427
	row %	32.3	35.8	31.9		100.0
	col %	25.1	63.8	47.6		39.6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col %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428.762$		df=9	p=0.000	
		$\chi^2_{(9)}=16.919$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의 후박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점근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피부의 후박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피부가 "박"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5.7%

로 전체 소양인 비율 26.5%보다 크게 높고, 피부가 "후"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7.5%로 전체 태음인 비율 51.0%보다 높았다. 따라서, 피부가 후박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태음인과 소양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부가 "건"하거나 "연"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Stiffness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Stiffness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Stiff	Count	129	4	25		158
	row %	81.6	2.5	15.8		100.0
	col %	23.5	1.7	8.7		14.6
Soft	Count	140	203	78	1	422
	row %	33.2	48.1	18.5	0.2	100.0
	col %	25.5	84.6	27.3	33.3	39.1
not clear	Count	12	4	1		17
	row %	70.6	23.5	5.9		100.0
	col %	2.2	1.7	0.3		1.6
none	Count	269	29	182	2	427
	row %	55.8	6.0	37.8	0.4	100.0
	col %	48.9	12.1	63.6	66.7	44.7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col %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314.081$		df=9	p=0.000	
		$\chi^2_{(9)}=16.919$				

이 표에서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견연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점근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피부의 견연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피부가 "건"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81.6%로 전체 태음인 비율 51.0%보다 크게 높았으며, 피부가 "연"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48.1%로 전체 소음인 비율 22.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따라서, 피부가 견연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태음인과 소음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Roughness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Roughness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Refined	Count	48	67	71	1	187
	row %	25.7	35.8	38.0	0.5	100.0
	col %	8.7	27.9	24.8	33.3	17.3
Rough	Count	256	42	48	1	347
	row %	73.8	12.1	13.8	0.3	100.0
	col %	46.5	17.5	16.8	33.3	32.2
not clear	Count	2	1	2		5
	row %	40.0	20.0	40.0		100.0
	col %	0.4	0.4	0.7		0.5
none	Count	244	130	165	1	540
	row %	45.2	24.1	30.6	0.2	100.0
	col %	44.4	54.2	57.7	33.3	50.0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col %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129.538$		df=9	p=0.000	
		$\chi^2_{(9)}=16.919$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점근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피부의 조세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피부가 “조”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3.8%로 전체 태음인 비율 51.0%보다 높았다. 또한, 피부가 “세”한 사람의 경우, 체질이 소음인인 경우와 소양인인 경우의 분포 비율은 각각 35.8%, 38.0%로, 전체 소음인, 소양인의 비율인 22.2%, 26.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태음인인 경우는 25.7%로 전체 태음인 비율 51.0%의 1/2 수준이었다. 따라서, 피부가 “조”한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세”한 경우에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여,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정도의 체질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Touch-feeling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Touch-feeling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Slippery	Count	98	15	204	1	318
	row %	30.8	4.7	64.2	0.3	100.0
	col %	17.8	6.3	71.3	33.3	29.5
Feeble	Count	33	144	9		186
	row %	17.7	77.4	4.8		100.0
	col %	6.0	60.0	3.1		17.2
not clear	Count	3	17	10		30
	row %	10.0	56.7	33.3		100.0
	col %	0.5	7.1	3.5		2.8
none	Count	416	64	63	2	545
	row %	76.3	11.7	11.6	0.4	100.0
	col %	75.6	26.7	22.0	66.7	50.5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col %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 = 735.954$		df = 9	p = 0.000	
		$\chi^2_{adj}(9) = 16.919$				

이 때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점근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피부의 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피부가 “미”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4.2%로 전체 소양인 비율 26.5%보다 크게 높았으며, 피부가 “부”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7.4%로 전체 소음인 비율 22.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따라서, 피부가 미부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소양인과 소음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피부가 “세”한 경우,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소음인과 소양인을 구분하기 위해, 피부가 “세”한 경우에, 소양인과 소음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피부의 “미”하거나 “부”한 정도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체질의 분포를 조사하였다(Table 6).

이 때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각 체질별 분포 사이의 점근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피부의 세미부한 정도와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피부가 “세”하지는 않고 단지 “미”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1.9%로 전체 소양인 비율 26.5%보다 크게 높았으며, 역시 피부가 “세”하지는 않으면서 “부”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9.9%로 전체 소음인 비율 22.2%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런데 여기에 피부가 “세”하면서 동시에 “미”하거나, “세”하면서 동시에 “부”한 경우 각 체질의 분포 비율을 보면, “세미”한 경우는 소양인의 비율이 71.6%, “세부”한 경우는 소음인의 비율이 96.2%로, 앞에서 단지 “미”하거나, 단지 “부”한 경우의 각 체질의 비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경우를 구분할 때, 여기에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를 함께 구분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 “세”와 “미”, “부”를 통하여 소음인과 소양인을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조”에 의하여 태음인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각 체질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피부를 통하여 체질을 구분할 때, 피부가 “후”하거나 “건”, “조”하면 태음인으로, “세부”하거나 “부”, “연”하면 소음인으로, “세미”하거나 “미”, “박”하면 소양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Table 6. Minute & Smoothness \*Constitution Crosstabulation

Minute & Smoothness		Constitution				Total
		TE	SE	SY	TY	
none & Slippery	Count	79	13	151	1	244
	row %	32.4	5.3	61.9	0.4	100.0
	col %	14.4	5.4	52.8	33.3	22.6
none & Feeble	Count	31	93	9		133
	row %	23.3	69.9	6.8		100.0
	col %	5.6	38.8	3.1		12.3
none & not clear	Count	2	16	8		26
	row %	7.7	61.5	30.8		100.0
	col %	0.4	6.7	2.8		2.4
Refined & none	Count	28	14	18	1	61
	row %	45.9	23.0	29.5	1.6	100.0
	col %	5.1	5.8	6.3	33.3	5.7
Refined & Smooth	Count	19	2	53		74
	row %	25.7	2.7	71.6		100.0
	col %	3.5	0.8	18.5		6.9
Refined & not clear	Count	1	1	2		4
	row %	25.0	25.0	50.0		100.0
	col %	0.2	0.4	0.7		0.4
Refined & Feeble	Count	2	51			53
	row %	3.8	96.2			100.0
	col %	0.4	21.3			4.9
none	Count	388	50	45	1	484
	row %	80.2	10.3	9.3	0.2	100.0
	col %	70.5	20.8	15.7	33.3	44.9
Total	Count	550	240	286	3	1079
	row %	51.0	22.2	26.5	0.3	100.0
	col %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Chi-Square		$\chi^2 = 785.754$		df = 21	p = 0.000	
		$\chi^2_{adj}(21) = 32.671$				

## 결론

익산 원광 한의원에 의해 체질정보은행에 등록된 체질 표본 중 피부진단 데이터를 검색하여 그 체질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피부가 “박”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5.7%로 전체 소양인 비율

26.5%보다 크게 높고, 피부가 “후”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7.5%로 전체 태음인 비율 51.0%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피부가 후박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태음인과 소양인임을 알 수 있다. 피부가 “건”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81.6%로 전체 태음인 비율보다 크게 높고, 피부가 “연”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48.1%로 전체 소음인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볼 때, 피부가 견연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태음인과 소음인임을 알 수 있다. 피부가 “조”한 사람의 경우, 태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3.8%로 전체 태음인 비율보다 높은 반면, 피부가 “세”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과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은 각각 35.8%, 38.0%로 전체 소음인, 소양인의 비율보다는 높지만 서로 비슷하여, 피부가 “조”한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세”한 경우에는 소음인 또는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부가 “미”한 사람의 경우, 소양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64.2%로 전체 소양인 비율에 비해 크게 높으며, 피부가 “부”한 사람의 경우, 소음인 체질의 분포 비율이 77.4%로 전체 소음인 비율보다 크게 높으므로, 피부가 미부한 정도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체질은 소양인과 소음인임을 알 수 있다. 세미”한 경우는 소양인의 비율이 71.6%, “세부”한 경우는 소음인의 비율이 96.2%로, 앞에서 단지 “미”하거나, 단지 “부”한 경우의 각 체질의 비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피부가 “미”하거나 “부”한 경우를 구분할 때, 여기에 피부가 “조”하거나 “세”한 정도를 함께 구분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 각 체질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피부를 통하여 체질을 구분할 때, 피부가 “후”하거나 “건”, “조”하면 태음인

으로, “세부”하거나 “부”, “연”하면 소음인으로, “세미”하거나 “미”, “박”하면 소양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동의수세보원 · 사상인변증론 조문 18-9. 太陰人 肌肉 堅實, 少陰人 肌肉 浮軟.
2. 김종열, 김경요, 송정모 : 체질관별표를 이용한 체질관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pp181-213, 1998.
3.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보원계, 함흥, 1900.
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5. 김대윤, 이재원, 김달래 :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159-168, 1999.
6. 김종열, 김경요, 송정모 : 체질관별표를 이용한 체질관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181-213, 1998.
7. 김종열, 김흥기 : 익산원광한의원 내원환자의 체질분포에 관한 통계적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4(3), 118-129, 2003.
8. 김종열, 김흥기 :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5(2), 64-74, 2003.
9. 이도경. 사상요람, 원불교출판사, 익산, 1995.
10. 박인상. 동의사상요결, 소나무, 서울, 1992.
11. 허명희. 통계적 개념·방법·응용, 자유아카데미, 서울, 1998.
12. 박정민, 나상균. SPSS 11.0을 이용한 통계 분석, 법문사, 서울, 2003.